

침체일로 강원 건설경기 내년에도 암울

주택수요 위축·수주 감소 현실화 하도급 업체 자금난 심화 우려

내년에는 국내의 건설경기 악화로 강원 건설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각종 연구기관들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설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주요산업별 경기전망과 시사점'

이란 보고서에서 건설업계는 주택수요 위축, 부동산 시장 후퇴기 진입 등에 따라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에는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감소 폭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주택건설은 둔화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속에서 공공기관 의존도가 높은 강원건설은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란 시각이 유세하다. 실제 민간부문을 제

외하고 도내 업체들은 2010년 1조5459억원을 수주했으나 지난해는 1조2984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수주액이 감소세다. 올 10월까지 건설수주액도 1조180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재무건전성이다. 내년에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건설분야가 조정을 받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영세한 도내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은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

다. 특히 동계올림픽과 철도·고속도로 등 SOC건설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공사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도내 건설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도내 건설 특수는 완료된 상황이며 민간부문 수주액 상승은 대부분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원건설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무할당, 분할발주 등의 정책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은복.rio@kado.net

동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내주 재개 전망

7월 STX 법정관리 장기 중단 대림건설과 공동 공사 가닥 공정률 97.3% 내년 4월 완공

속보=GS동해전력 북평화력발전소의 토목분야를 담당해온 STX건설의 법정관리로 장기간 공사 진척을 보이지 못

하던 발전소 건설사업(본지 9월19일자 19면·11월9일자 18면)이 이르면 내주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GS동해전력 관계자는 7일 "북평 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이 지난 7월 STX 건설의 법정관리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했으나 최근 연대보증 기업인 대림건설과 STX건설이 함께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체 공정률 97.3%로 마무리단계에 있는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이 재개되면 내년 4월쯤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STX건설은 GS동해전력 북평 화력발전소 1·2호기의 토목분야를 건설했으나 지난 7월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지역 건

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체납된 공사대금도 해결되지 않아 지역 관련업체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GS동해전력 관계자는 "공사 재개를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다 최근 대림건설과 STX건설 등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며 "내주 중 공사를 시작해 빠른 시일 내 발전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